

## 느슨한 공동체 혹은 팽팽한 공동체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디렉터 유승덕

안산시 원곡동 786번지 ‘국경없는마을’에 자리 잡은 조그만 예술가 공동체를 우리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리트머스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공동체라는 말은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 해석도 분분하다. 모리스 블랑쇼와 장 퓌크 낭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전복하고 ‘어떤 공동체도 이루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펼친다. 근 20년의 시차를 두고 오고간 프랑스 현대 철학의 두 거목들의 공동체에 관한 급진적인 탐색은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고, 그 논문에 대한 응답으로 같은 해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가 발표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낭시는 1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의 재응답으로 <마주한 공동체>를 발표한다.

이 두 지성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려 했던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모델은 단단한 조직체계도 동일성을 전제로 한 어떠한 이념이나 기준도 없는 그야말로 ‘공동체 밖의 공동체’인 것이다. 우매한 독자가 이해한 이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목적은 결코 합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한 배에 태우고 떠나는 위태로운 항해와 같은 것이 공동체인 것이다. 조직화되지 않은 이 느슨한 공동체는 합의를 이루어내는 대신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이 상호작용을 하며 어렵사리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확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지 않은 이 공동체가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의 모순을 대체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배경에는 “예술 밖의 예술”을 표방하는 리트머스의 애매모호한 정체성이 앞에서 언급한 두 철학자가 거론하는 공동체와 일정 부분 닮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간(人間)은 성경에서 귀정 짓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人)과 사람(人) 사이(間)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존재를 확인한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는 못사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여 뜻을 세우고 선을 이루니 그야말로 불역열호(不亦說乎)라. 그래,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공동체가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원 개개인들의 개체성과 각양각색의 욕망은 희생을 강요받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서 집단거주하며 공동생산과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유토피아를 닮은 소문난 공동체가 오래지 않아서 와해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얼마 전 ‘W’라는 TV프로에서 소개되었던 실업률 제로 퍼센트인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의 실체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관한 꿈이 가지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 무주택자, 돈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자 한명도 없는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 7선의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품이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를 닮은 이 시장님의 정신적 지주는 카스트로와 혁명의 동지였던 체 게바라란다. 이분이 만든 이상향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흔하게 시도

되기도 했고, 영성하고 모순투성이며 형편없어 보이는 자본주주의 시스템에 자연도태 되다시피 한 초기 공산주의의 모델을 닮아 있었다. 컨셉은 별로라고 치더라도 어찌됐건 여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과 공동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몰려올 정도로 이 마을 공동체는 외견상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하다. 이 영광된 공동체의 일원들이 이 마을의 위대한 공동체를 만든 시장에 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겁먹은 표정으로 목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뭐가요?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이 동경하던 이 공동체의 기반에는 알록달록하게 다채로운 마을 사람들의 개체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불도저 시장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단일한 공동체의 모델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장님의 연설은 언제나 ‘마을주민의, 마을주민에 의한, 마을주민을 위한’ 거시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작된다. 이분의 치적 자체를 몰아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의 허상에 관한 것들이다. 이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이 자신의 욕망인지, 타인들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변별력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나왔을 뻔 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연설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살짝 바꾸자면, “여러분 나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꿈꾸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대열에 살짝 편승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은 살짝 내려놓으시고 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을 공동체가 1인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구성된 ‘팽팽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리트머스는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느슨한 공동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리트머스가 처음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이러한 ‘느슨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초창기 멤버들의 머리속에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하면 순수하게 게을러서 추진하지 못한 일들도 이 ‘느슨한 공동체’라는 핑계를 들어 합리화시키려 들었던 측면도 일정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느슨한 공동체’가 ‘게으른 공동체’의 동의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느슨한 공동체는 소극적인 구성원, 게으른 구성원, 아주 적극적인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 고유의 개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몸과 마음을 담은 집합체가 아닐까?

2007년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가 생긴 이후에 이 공동체를 스쳐지나갔거나, 잠시 머물다 갔거나, 이직까지 못 떠나고 있거나, 앞으로도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 모두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요 인자들이다. 이 공동체를 알게 되어 가슴 설레었던 사람,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설레던 마음을 단호하게 접어버린 사람, 그냥 여기가 편해서 좋은 사람, 편하기만 한 이곳이 너무 싫은 사람, 뭔가 자신에게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 머무는 사람,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모두가 퍼즐조각처럼 맞추어지면 리트머스라는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퍼즐의 조각은 기체처럼 유동적이어서 끼어 맞추어진 퍼즐의 그림들은 물 위에 쓴 그림과같이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면 아직 아무런 독특한 형상을 단 한 번도 소유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리트머스는 이러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리트머스는 이러하지 않다는 것을 안

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내가 리트머스라는 무형의 퍼즐을 구성하는 한 조각이듯 너도 그러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서로 다름의 공존은 오로지 공동의 목적만을 위해서 협력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는 아닌 것이다. 전혀 다른 퍼즐도 수평적으로 배치되고 공동체라는 퍼즐판의 한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리트머스의 지향점 없는 지향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팽팽한 공동체’보다는 ‘느슨한 공동체’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글: 유승덕

\*참고문헌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박준상 옮김,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문학과지성사